



# 보도자료

담당자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장(3775-9039)

보도 2025. 2. 17(월) 16:00부터
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매수 총 3매

## 보험연구원, 「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」 세미나 개최

- “해외의 경우, 건전성 감독 목적 부채평가기준은 체계적·구체적으로 제시”
- “국내 계리가정 관리 고도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”

○ 보험연구원은 IFRS17 기초가정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7일(월) 오후 3시 「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」 세미나를 개최함

### - 프로그램 -

시 간	내 용
15:00 ~ 15:05	(축 사) 이세훈 (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)
15:05 ~ 15:30	(발표 1) IFRS17 기초가정 관리 감독 해외 사례 노건엽 (보험연구원 실장)
15:30 ~ 15:50	(발표 2) IFRS17 기초가정 관리·감독체계 개선제안 장덕조 (서강대학교 교수)
15:50 ~ 16:00	Break Time
16:00 ~ 16:50	(패널토론) 좌 장 : 이경희 (상명대학교 교수) 토 론 : 권병근 (손해보험협회 본부장), 이권홍 (금융감독원 국장), 천승환 (생명보험협회 본부장), 한상용 (금융연구원 실장), 한승엽 (이화여자대학교 교수) * 가나다순

○ (주제발표 1)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‘IFRS17 기초가정 관리 감독 해외사례’라는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기초가정 관리 사례를 소개함

• (연구개요)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평가 기준 및 IFRS17 기초가정 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보험산업 및 규제 환경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모색함

- 서강대학교(장덕조 교수)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8개월(2024년 5월 ~ 12월)간 진행하였음

-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감독당국(영국, 미국 등)과 인터뷰도 함께 실시하여 실제 부채평가 감독상황을 확인함

• (연구결과)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영국·미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, 통상 일반회계에서는 계리 실무표준을 자율규제로 활용

- 계리전문단체(계리사회 등)가 계리사의 업무 품질관리 및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율규제 차원의 다양한 실무표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, 미준수시 회원의 자격정지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함

\* 민간 실무표준에 대해 필요시 감독당국이 실무표준 제정에 직접 참여하거나, 변경을 권고

- 한편, 보험부채 평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,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

• (국가별)

- 영국·독일은 관련 법규에 따라 EU의 지급여력기준(Solvency II)상 부채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추가로 영국은 감독당국 중 하나인 FRC가 계리표준(TAS)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, 독일은 계리사회가 계리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실무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표준 제정시 감독당국이 참여함

- 미국은 NAIC(全美보험감독자협의회)에서 원칙론적 책임준비금제도(PBR)를 통해 감독목적상 부채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(VM)과 실무매뉴얼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, VM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특정 사안은 계리연합회(AAA)가 작성한 실무표준(ASOP)을 따르도록 규정함
  - \* 한편, 미국은 일반회계상에서는 구체적인 부채평가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, 계리연합회가 계리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상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실무표준을 제시함
- 캐나다는 관련 법에서 부채평가지 계리사회가 제정하는 계리실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감독당국은 계리실무 제정·채택에 참여하고 변경 지시도 가능함
- 호주는 관련 법에서 감독당국(APRA)이 제시하는 보험부채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계리사회가 실무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제시함

### < 국가별 부채평가 관련 계리기준 >

구분	EU	영국	독일	미국	캐나다	호주
감독당국	SolvencyII 가이드라인(Guideline)	규정집(Rulebook) 감독성명서(SS) 정책성명서(SOP) 실무기준(TAS) (FRC가 작성)	회람(Circular), 지침(Guidance Notice)	회계실무매뉴얼 (AP&P Manual) 부채평가 방법론 (VM)	실무표준(SOP), 교육자료, (Educational note) 등	보험부채평가기준 (LPS340)
계리전문단체	-	-	가이드라인(Guidelines) 지침서(Advisory notes)	실무표준(ASOP)	등	실무표준 (Professional Standard) 등

- (주제발표 2)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는 ‘계리가정 관리·감독체계 개선제안’이라는 주제로 국내 계리 감독 현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함
  - (국내 현황 평가)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으며 부채평가 관련 감독기준도 해외에 비해 구체적·체계적이지 않고, 내외부 검증 관련 준거자료 부족 및 부실검증시 제재근거 미비로 검증에 한계가 있음
  - (시사점) 앞서 논의한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국내 보험상품 및 산업특성에 맞는 계리가정 관리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